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5호 [무게 제25248호] 주체105(2016)년 4월 14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높이 떨쳐갈 억척의 신념과 의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백두산대국의 군사적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파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가 4월 12일과 1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표회장에 장식되어 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 전우가 되자!》 등의 구호가 대표회장에 나붙어있다.

대표회에는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당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백두산총대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사업을 총괄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위대한 장군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의 혈통민을 손꼽히게 만들어나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비서인 선전지령으로 198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시신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전군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어 인민군대를 영웅적인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겠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오종룡 7면대청호영위운동의 불길속에서 지난 20년간 군위 사육용경수제 105명교사단을 비롯한 수많은 부대들이 오종룡 7면대청호를 정취하고 여러 단위들이 3대혁명불기, 2중, 3중3대혁명불기 기구불대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김정은영웅과 부대공의 17명 영웅전사들, 《육탄5용사》와 같은 유명무명의 용사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군당위원회와 각급 당조직들에서 모든 장병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백두산결사옹위운동의 통상과 태양상, 영성함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열렬한 함성과 뜨거운 지성을 바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영도업적단위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이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 연철실 등을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전군의 지휘성원들과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종업원들속에 우리 당의 불멸의 선군영도업적을 깊이 새겨주시도록 하였다.

보고자는 인민군당위원회가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받들어 인민군대를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무적원수의 백두산혁명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당을 영도하시는 전기간 일관하여 구현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정치, 선군영도는 백두산대국의 원수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사상결단의 의지로 철명과 오성산, 초도를 비롯한 최전선초소들과 수많은 부대, 구분대들을 찾으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무비의 탄력과 원수격멸의 용맹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군영도는 인민군대가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질음마다 짓밟아버리고 혁명의 전위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한 불계의 힘의 원천이었다.

오늘 인민군대의 승리의 전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팔리어 뿌리를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사사상을 더욱 발전추진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 제5차 총원인민군대회와 제7차 군사교육인민군대회를 마련하시어 전군에 백두산총대영웅, 군사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휘날리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련된 명군술은 무도의 영웅보병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명포수, 명사수운동에도 새겨져 있고 항공 및 민항공군 비행기회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도 어려웠으며 해군에서 인민군대의 첫 다량중대가 배출된데도 잊혀지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장지지도원대회와 제3차 대대장, 대대장지지도원대회를 계기로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고 모든 중대, 대대를 당중앙위원회 뜻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은 고향집, 정은 고향마을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보고자는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 커다란 개선을 가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 끌어내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사상중시, 사상사업실행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5대교양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장병들을 사상의 강자, 도덕의 강자, 기적의 창조자들로 훈련해주시겠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지난 기간 인민군대가 력사의 모진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오직 당을 따라 총정파 위훈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철불후의 정력적인 령도와 대세같은 사랑이 안아온

보고자는 인민군대의 후방도대를 본분히 꾸리고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정형 군인생활문화제도를 위해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군인들이 먹는 전간생의 맛과 색깔도 가능해보시고 솜옷의 바늘구멍으로 스며드는 찬바람과 배풍에 너털살의 얼굴이 뜨는것까지 헤아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후방사업이후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는 독창적인 사상을 받들고 풍농사와 수산, 축신의 3대업종을 일으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생산, 열매문제해결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 자못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인민군대가 조국의 수호자로 시뮬리나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군장병들이 무비의 희생성과 대충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조국평화시장이 빛날 위훈을 창조해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4년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기상으로 마식령스키장과 조국대방진행승리기념관, 미제파괴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수많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 건설의 대원기를 펼쳐놓고 지적사업으로 강성연영하는 선군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파시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 커다란 개선을 가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 끌어내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고려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영도업적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최정예혁명군대로 위용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고 지난 기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표회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대표회에서는 인민군당위원회 지도기관 선지가 전행되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낸 대표자선거와 방청자추천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명서동지가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추대하는것은 인민군대인의 전체 당원들과 군인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운동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지구,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두산대륙의 간직된 억척불변의 신념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강력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크나큰 환희와 격정, 무한한 공지와 행복에 넘쳐 열광적인 박수와 통곡같은 《안대!》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대표회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인설치위원을 앞장서서 받들어 인민군대의 계승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하여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자와 방청자로 선거, 추천되었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시였으며 수령의 사랑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투쟁력이 있어 우리 당과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정년전위로 본분히 준비해나가겠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인민군대 중대인민군인들을 선군혁명영도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한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여기시어 불같은 열과 정으로 이 땅위에 병사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고계신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며 반세기후의 기적 높이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가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세계가 공인하고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것은 최대의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는 전체 대표회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단결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며 백두산대륙의 강대성과 준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추대할것을 강력히 제의하였다.

계속하여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 공묘의 위대성에 대하여 격조높이 로호하면서 당중앙의 령도따라 백두산총대의 위대함을 높이 떨쳐갈 불같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인민군대의 백전백승이 있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연영이 있다는것이 전체 장병들의 심정속에 간직된 억척불변의 신념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강력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크나큰 환희와 격정, 무한한 공지와 행복에 넘쳐 열광적인 박수와 통곡같은 《안대!》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대표회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인설치위원을 앞장서서 받들어 인민군대의 계승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하여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자와 방청자로 선거, 추천되었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시였으며 수령의 사랑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투쟁력이 있어 우리 당과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라오스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전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분당 위리 령동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쉘람피 씨이신분께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3일 문강 인라부리리 주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별전대사관 대담 부흥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전에 즈음하여 일조우호 시교우편락회, 일조학술교류협회, 배후조선선선문화협회와 전 일본 부수상 가네마루 시가카, 배우 김정숙도서관 편성 리마 로하스가 13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당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13일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를 주화위업실현과 주체적외교 보문들의 강화발전이래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시어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예심준비위원회가 3월 27일 까리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으 예심준비위원회 위원 장 아야자 자카리야 헤이롤라와 부위원장 아야르도 아브둘라라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3월말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

새로운 행사들을 조직하며 출판 보도물을 통한 소개선전활동을 적극 벌리기로 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가 3월 28일 도이일 만드 필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으 조선과의 친선협회 도이일 만드 부대표 우도 예미벤과 조 직서기 모슬라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태양절

부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 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세스포브위원회가 3월 9일 브라하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으 백두산세스포브선선협회

위원장 아야르도 카르파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의 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됨에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비약적인 성과를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습니다



↑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포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0(1961)년 4월
주제 65(1976)년 9월



함주군 조양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할머니에게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9(1960)년 8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인 진응원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9(1960)년 10월

개천군 외서협동농장 여성트랙도르운전수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2(1973)년 11월



대안전기공장 합숙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7(1968)년 5월

평양시 외성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9(1970)년 12월

청소년학생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75(1986)년 12월



유자녀들을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0(1961)년 5월

만포군 고산진 립성골의 농민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7(1958)년 8월

남포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어로공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9(1960)년 10월

인민의 어머니 우리 수령님



인민의 마음 오늘도 만경대교향집으로 끝없이 흐른다. 본사기자 한병명 찍음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때로부터 어느덧 104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향한 축정의 70일전주의 나날속에서 태양절을 맞게 되는 천만군민의 그리움의 대화가 만경대교향집으로 끝없이 흐르고있다. 거기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금시라도 우리를 한층에 인아주실듯 불꽃판이 환하도록 웃자락을 날리시며 걸어오시는 것만 같은 어머니수령님, 수령님을 그리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소중한 간지된 추억의 선물이 뜨겁게 울린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인제주시러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어머니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꽃처럼 피었다...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꽃피는 행복을 누리는 기쁨에 넘쳐 그이름 하늘까지 퍼뜨리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라고 절절한 격정을 터지던 우리 인민,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열락면 변한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 불같은 충성으로 심장을 끓이는 김일성인민의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이 노래의 선율은 인민의 어머니라는 부름과 더불어 언제 한번 잊어본적 없었다.

인민의 어머니, 여기에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의 거룩함이 실려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셨으며 인민에게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체의 성스럽고도 빛나는 업적과 공로가 인민의 어머니라는 이 부름에 승연히 집약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품도에 있어서나 인민적품도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다.』

인민의 어머니, 여기에는 우리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실현한 전리가 담겨져있다. 자기의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이 빛날 지고있으며 수령과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력사의 만년을 맞이하여 헤쳐나가는 영웅조선의 기상 이 북돋워지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한평생, 그것은 온 겨레를 하나로 뭉쳐나와서 보살피고 온세로운 사랑의 력사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헌신의 서사시였다.

주체 43(1954)년 10월 어느날, 어머니수령님께서 전평대원

수령들에게 일가친척 30여명을 뵈고 인민에서 혼자 살고있는 증산군이 압리의 한 관리일군을 찾으면서 그를 오래도록 위로하시다가 떠나시려고 문밖에서 나서시었다. 하지만 쉼 없는 인민을 위하여 외로이 밤을 지낼 그의 정상이 너무나 가슴저리시며 수령님께서 한 일군에게 걸걸이 아무리 비벼도 여기서 하루밤을 지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밤으로 돌아가시었다. 그러시고는 손수 병마개를 여시고 술을 부어 권하시면서 이럴 때 술 한잔 마시면 아픈 가슴이 풀릴 수 있다고 하시며 그와 함께 밤을 보내시었다. 그때로부터 한겨레를 위하여 오늘까지도 이 이야기 사람들의 가슴을 그리듯 뜨겁게 울려주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인민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고 쓰다듬어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이 너무나도 극진하고 뜨겁기때문이다.

인민을 철속으로 대하고 철속으로 아끼며 보살피는 사랑처럼 깊고 뜨거웠을 것이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정박의 눈보라소리를 들으시어도 침관에서 일하는 필복공부를 생각하시고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비새는 집이 없었는가를 걱정하시던 우리 수령님, 그이의 이런 뜨거운 사랑, 극진한 걱정속에서 내 나라의 새날이 밝고 해가 저물곤 하였다.

사랑의 헌사는 인민의 탄생과 더불어 생겨나 가지까지 강동같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기록하여왔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알려진 사랑의 이야기를 아무리 다 모은다 한들 어찌 우리 수령님께서 지내신 인민에 대한 그토록 뜨거운 어머니사랑에 비견수 있었는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니사랑은 그이의 모든 사색과 탐구의 원천을 이루었으며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세우시는 모든 조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 부럽게 하는 인민적시책들이 끊임없이 실시되어온것은 결코 남들보다 무엇이 풍부해서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다 공부시켰으면 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니사랑에서 천만 1년제의 무교육과 국가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나왔고 약한 힘 써보지 못하고 부모처자를 잃은 인민들의 아제날치지를 못 잊으시는 그이의 어머니사랑속에서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혜택을 받는 무상치료가 생겨났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어머니사랑의 헤아리내림이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약속하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기쁨과 웃음이 꽃피었다.

우리 수령님의 생의 순간순간은 곧 전진하는 혁명의 한결같은걸음이었고 높아가는 인민의 행복의 한치 한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잠도 후식도 때식도 뒤로 미루시며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니 그 사랑.

세상에 인민을 위해 바친 헌신성이 미덕으로 찬미된 예는 없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하여 집적한 발의 흠도 주무르시고 눈에 도 내시며 웃으신, 마른잎 가리지 않고 신 땀도자물 력사는 알지 못한다.

인민에 대한 속신의 정,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바치는 지성에도 비견수 없는 이 무한한 헌신성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정진성이었다.

본사기자 김준혁

나는 동무들이 환할만만 먹을수 있다면 이런 눈비를 얼마든지 맞겠소라고 하시며 전는까비내리는 잠잠한 밤에 뽕소 뽕뽕을 드시고 걸으신 어느 한 농장의 비탈밭길, 형식주의를 하려면 무엇때문에 여기까지 왔겠는가고 하시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발목까지 빠지시면서 걸으신 신도의 감동길, 인민들이 있는 곳에는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뽕소 뽕뽕을 밟아 가신 우암의 전평길...
온 나라 그 어디에나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우리 수령님의 이런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원지지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사철 흰구름을 허리에 감고있는 백두산기슭의 어느 한 사업소 산관길과 불비에 젖은 천리마의 교향의 구내길에서도, 바람세찬 신로의 부두와 석수엔어지는 집의 지하막장에서도 어머니수령님의 로고를 못 잊어 목에여하는 사람들의 이런 뜨거운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자식들의 생활을 주석구석 보살피며 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농촌집에 불리시어 가마뚜껑도 열어보시고 새 집들이 한 실집에 가서서는 밤바라도 잤어보시었으며 공장노동자들의 식당과 합숙방에서 국맛도 보시고 이불두터이도 가늠해보시면서 우리 인민을 더 잘 믿고 더 잘 믿히기 위하여 마음쓰신 인민의 어머니 우리 수령님.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울으신 그이의 어머니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천으로, 만으로 다 헤아릴수 있오라. 어머니라는 말은 결코 화려한 시어가 아니다. 운명의 파도가 하나로 이어져있고 철육보다 더 가까운 강철한 사랑과 정이 진하게 넘쳐흐르는 이 말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격동, 인위적인 미사여구로는 도저히 읊을수 없다.

력사의 진실한 제철에 푸리를 둔 이 세상 가장 순결하고도 고결한 부름인 인민의 어머니.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수령영생의 노래이다.

유구한 인류역사와 오늘의 세계에 한 나라 인민이 대를 이어, 세기를 이어 자기의 수명을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은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가.

이토록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안고 오늘날도 우리 인민은 다함없는 그리움과 불타는 충성의 평생을 담아 뜨겁게 목에 부여 부른다.

위대한 김일성주체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어머니이시라고.

본사기자 김준혁

제18차 김일성화축전 개막

【평양 4월 13일 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주체년으로 빛나는 태양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된 4월의 봄명절에 즈음하여 열리는 영생축원의 꽃축전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데로 하여 더욱 뜻깊고 의의있는 축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명도따라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창조하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북돋아 내달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대의 경사스러운 봄명절을 성대히 경축할 임무를 안고 태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축전이 열리게 될 김일성화 김일성화전시판에는 공화국기와 축전기념품들이 계양되어있으며 《제18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전경축》이라는 글판과 축전마크가 나붙어있었다.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축전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부흥한 미래를 축복하여 만민을 김일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 부처,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80여개 단위와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활짝 피운 수만상의 김일성화를 안고있다.

양형성품지와 정음전체각부 총리, 판서부원 일군들, 태양의 꽃을 전지한 단위 일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전경축 제일분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해외동포들, 주요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참관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었다.

김정조 조선 김일성화 김일성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방의 대회로 빛내

이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축정의 70일전주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의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화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비범한 명도와 숭고한 덕만으로 지구시대를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이며 천만군민에게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국보도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한 축정의 70일전주철야전군에 한 사람이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

무추구하고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반방 히엔드라스도 주요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18차 김일성화축전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것을 커다란 긍지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일성화를 상징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단결과 행복, 협력과 굳건한 친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 시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태양의 꽃, 위인칭송의 꽃으로 활용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지부리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지부리공화국 대통령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흐각하

나는 당신이 지부리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4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모범적인 단위들과 기대에 2중26호모범기대 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과 기대에 2중26호 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 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과학지식수준을 높여 말과 같이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기초의학부 국가과학원 물리화연구소 평양최초연구소 민중화초사 연구소 대동강축전지공장 만경대애국농장공장 형제적장 평양종합인쇄공장 활영직장 모진성1월25일제작사 평양블록공장 부대생선직장 만경대농장 생금2직장 문수봉화피복공장

26호모범기대영예상: 김경숙사범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기계생산 공학부 천비메장연합기업소내화물직장 남흥청년화력연합기업소 기초시공직장 증산은하피복공장 삭수군의약물관리소

신의주시승배연구소 운산군계성소 강계폐지공장 은파광산 굴진정 불용광산 보석정 황주군 삼훈공장 안주철도화공장 청룡사창대 전기기관차 《불은기》 521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시가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모범준법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단위칭호를 수여한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예운 직장 예성강철연1호발전소 원산통신계불공장 원산시습목장 제2작업반 북청군 파하파수농장 농산계 3작업반 연시혁명사적관

무산군상업연구소 회명고려약공장 김형건 군 용산고급중학교 파선시태사감독직 라선시 라진지구 신흥초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새로운 력사적계기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조선은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승리의전진의 력사를 기록하며 자주, 자립, 자위를 확고히 실현한 강국으로 일어났다. 력사에 유례없는 가장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선로동

당은 명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철속같이 묶어세우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서 사회주의를 지켰을뿐만아니라 장성국가건설의 도약까지 마련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정조제1비서의 명도명에 경계강국, 사회주의혁명군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뜻마다에 기념비적전승물들이 일어났고 지난 1월 수호탄시험의 성공에 이어 2월에는 지구관측위성

파시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진행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놓는 새로운 력사적계기로 펼쳐졌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4》 호가 우주로 날아올라 다 시금 국력이 만만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4돐에 즈음하여

(시) 고향산천의 메아리

푸르리 설에는 봄이마다
송이송이 꽃들도 수를 놓는 민경대
우리 수령님
사랑하는 아드님의 손목을 잡고서
떨쳐신나장군과 함께 걸으시리라

유정한 이 산천
싱그러운 흙바람에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신념의 노래로 부르시며
혁명의 민걸 머나신던
아버님의 그 음성 실려오는듯

리 언 회

울리고있구나!

저절씩—

물결도 격랑을 일으키는가
떨쳐신 나장군을 뺏아드리시고
강물위에 띄운 목표를 겨누시는 수령님
머치고싶은 민단시연을 담아
방아쇠를 당기실 때

땅— 땅—

설방이 번쩍
만경봉 주둔 숲이 과도쳐 설레었다
민경대기문은

이국만리 낯설은 라향에서
얼마나 가고싶던 고향이던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
삼천리여

밝은 새 세상 기어이 인아오리파
두자루의 천홍을
유산으로 남기시던 아버님의 눈빛에
뜨겁게 어리던 민경대의 고향길

푸르리 익세인 저 소나무
점점이 붉게 띠는 산꽃들은
백악기 나라를 찾기 위해
한복술 서슴없이 다 바친
일가분들의 피땀을 뺀이던가...

꽃향기 그윽한 산천을 걸으시어도
마음속엔 불어지는 열전민리 눈보라
아버님 물려주시고 그 인품 높이 들고
항일전선의 총성 울리며
천신만고 헤쳐오신 장강 스투배

이 땅에 희망의 환희 넘쳐나고
우리 어찌 손에서 총대를 놓으랴
백두의 천지에서 한나의 백룡담까지
한복에 다 안으시는 수령님
순화강가에 숙연히 걸을 멈추시리라

—정숙 동무, 오늘은 민경대에서
총소리를

(시) 사랑의 사진 못 잊을 화폭이여

들에는 누런 이삭들이 초느리고
산에는 온갖 열매 주렁지는 가을날
수령님은 이없는 농장마을
산촌의 파수원 앉으셨네

앞장에서 걸으시는 경사급한 비탈길
물결마다 몇번이슬에 옷차림 벗어
들었다

환히 웃으시며 오르시는 수령님
하늘이 보이지 않게 열매주렁진
사파나루에 걸을 멈추시었네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겠소
기뻐하던 수령님 그 음성에
일군들은 너무 좋아 어떻게 모르고
사물러 부딪은 사진기를 꺼내드
는네

어인 일인가
사파라는 파원의 처녀들을
어서 오라 손에서 부르시는 수령님
일군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아니라 사파봉을 얻어온
주인들을 찍어주고싶어 그러오

손에서 총대를 놓지 않으리
영원한 선군의 의지로 울려 퍼진
위대한 력사의 선언이여

한방 또 한방
너장군께서도 쓰시었다
이리신 장군님께서도 쓰시었다
지구상에 침략자가 남아있는 한
조선혁명을 총대물 끝까지 이어가리라

아, 그날의 그 총성
세기를 이어 오늘날 울려오거나
부용강국의 위용 펼쳐며
세계주의를 부르며 휘젓는 폭음으로
최후승리의 장엄한 추모성으로 메아리
쳐갈
고향산천의 총소리 총소리...

(시) 이런 날 이런 때면...

개학의 기념년엔 4월
태빛밤은 교실
수령님들 환히 웃으시는 초상화아래
아이들이 저마다 펼쳐들었구나
한수리 사랑 어린 새 교과서를

내 한쌍 책가방에서
귀머리 쇠였건만
이런 날 이런 때면
못 잊을 추억에 어려오는
어릴적 산촌마을 동구집이여

그날의 들꽃만 마음결에서
우릴 향해 마주오다 멈춰서던 송용차
몸소 내리시여 어서 오라고
우리들을 손에서 부르시던 수령님
모습

날아가던 새들도 부러워 지저귀는가
공만 갈아 덩어리는 우리를 품에
안고
책가방도 열어보시며
필갑속의 연필도 세어보시며
어디 가는 걸인가고 물으시었네

익숙이나 한듯이
학습만에 간다는 딱직한 대답
학습만을 하니 무엇이 좋은가고
프다시 정망아 물으시는 수령님
모르는것을 물어보아서 좋다고

그날처럼 사진기를 손에 드시고
환히 웃으시며 오실것만 같은
사투리는 그리움이여

아, 그날에 우리 수령님
자신의 사진은 남기지 않으셨건만
파원의 처녀들을 불러
몸소 사마를 누르시던 아버지의 그
모습은
불멸의 화폭으로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졌어라

(시) 이런 날 이런 때면...

힘든 산수문제
서로 들고 이따금 함께 푸니 좋다고
동무들 신바람속에 말씀드릴 때
나도 어찌 으쓱 나서며 대답했어라
—교과서도 같이 보자 정말 좋습디다

오돌한 철부지의 대답에
일군들은 마주보며 웃고
아이들도 장한대 싱글벙글
히나 어린 일인가
수령님 안색을 흐리시었으니
—교과서를 같이 본다는건
모르시는 소리가 아니라

그제야 어린 마음에도 깨달은 실수
눈길 슬며시 면주는데
나를 꾸안으시며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교과서조차 너그러 대주지
못하고 있구나

아, 잊지 못한 그날
아이들을 학습만에 배워주려고
해머 받걸을 달리던 송용차
어이 알았노
정망으로 돌아오신 수령님
긴급히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실줄

산골마을 소년의 한마디 말도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화대광산 소년장 박남철
은 웅변 《태양조선의
선언》에서 이렇게 강조하
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구상과
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막근
해적제국들의 극악한 도발책동에
대항하여 우리의 진해 로동계급은
수령님들께 충성하여 투쟁해나갈다.

모두가 우리의 눈부신 태양을 가
리워보려고 미처나갈고있는 적들을
찌중차도 없이 짓밟아버릴 적들의
기세로 힘찬 투쟁을 벌려 70일전투
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 영광
의 5월을 맺었이 맞이하자.

웅변대의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
의 태양으로 찬성하는데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도하며
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심각한 토의안건으로
한시바빠 찾아야 할
나라의 중대사로 여기신 수령님
아버이 그 몸속에 안겨
우리 세대가 자랐고
복받은 후대들이 자라났구나

오늘도 현수문 은정속에
대총장 푸른 풀 반기어 출렁이고
김일성동지가 두팔벌려 안아주시는
남산애인덕
우리 수령님 제일로 아끼시던
평양의 명당자리

(시) 여기서 인민이 산다

푸른 추녀 내려면 인민대학습당이
은 나라 인민을 어서 오라 부르시는
이 언덕에서
못 잊어 이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는 수령님 생각이여

얼마나 아끼고 아껴오시던
이 지리였던가
전회의 불길속에
휘황한 살계도를 펼쳐주시 때에도
남산애를 평양의 중심으로 정해주신분

지금도 들려와라 이 좋은 자리에
수령님 높이 모실
《공진》을 세우고 싶었던 인민의
마음
불타는 소원이 삼가 그린 살계도를
보고
그리고 노하셨던 아버지의 그 음성

—이 좋은 자리에 정부청사를 세우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곳엔 꼭 인민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아, 인민은
태양으로 받들고 싶은 김일성동지
하나 그이의 마음속엔

세 교과서를 받아안은 아이들모습
아, 이런 날 이런 때면
산촌마을 동구집에 울리던 그 목소
리로
삼가 이회이는 이 마음
—수령님!
아이들이 새 교과서를 받아안았
습니다

하늘처럼 높고있는 인민이여
자신의 그 생생함이 주주로 떠날든
《인민의 천국》은
발췌 수령님 마음속에 새겨져있었다

(시) 여기서 인민이 산다

학습당이 완공된 그날조차도
태양의 존함으로만 부르고싶은
이 황홀한 공간에
《인민》 두 글자를 빛나게 새겨
근로하는 평범한 아를따들의 삶을
더 높이 받들어 올려진 인민의 수령

그이께서 책이 아니라
이 땅위에
빛으로가 아니라
천원들을 쌓아 후세에 남기신
이민위원의 위대한 사상의 선아
아, 인민대학습당

여기 설 때면 생각이여
내 나라 그 어리 가나
좋은 곳 좋은 자리 다 골라
인민의 집을 높이 세워주시
아버지의 그 한행...
오늘도 인민의 이 언덕을 떠날듯
게시시듯

남다라 울려 퍼지며
이 가슴 흔드는 총소리 학습당의
총소리는
내 세상에 자랑하누나
내 나라의 명당자리마다
수령님 한행성 받드신
아, 위대한 인민이 산다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맹세 모임 진행

우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수령님들께서 생생로써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백두산대국의 무궁명영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그 어떤 시련
이 닥쳐와도 조국과 혁명, 인민의
자운영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현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모
욕으로 결사후호로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었다.

5대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
상사업을 철칙적으로 벌려 농업근로
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킴
으로써 온 나라 혁명열에 영원한 조선
의 정신, 조선의 기상인 백두의 혁명
정신, 때때의 앞바라광선이 휘몰아치
게 하였다.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명령한 내리시던
【조선중앙통신】

각급 혁명조직들은 경제건설
에서 그 정당적 생활력이 뚜
어리 확충된 4.15기술혁신단위
격대운동과 모범기술혁신단위
창조경쟁운동에 비롯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은 나라에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세계적 위용아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과학기술
총련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위
충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장의 보고에 이어 서기장 김룡,
남동청년과학연구소 지혜
인 윤정국,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조로 토론하였다.

보고회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지식인
들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
며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
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때 대하
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 제책
되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은 무바
인민들의 전투적선과 단결을
봉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괴범 김조로 부총
지의 리을 가스프로 부총
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선과 쿠바사이의 친선협조관
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총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진행

태양절총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웅변대회
《위대한 수령님은 로동계
급과 직맹원들의 영원한
태양》이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주령길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백수리공장 직맹이동체결장사
김영봉은 웅변 《우리 수령님》에서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한정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전선의
열전민리를 세치시어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
고 새 조국건설과 순연한 조국해방
전쟁,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백두산대국으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진행

위험해지는 사회주의강국이 일어났
다고 질책하였다.

《아버이수령님과 로동계급》이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북장혁명발전할
기업소 로동자 윤영림은 우리 로동
계급을 나라를 떠날때는 잊을 기쁨
으로, 혁명의 핵심부대로 키워주신
일제위원의 위대성에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있어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영웅적투쟁을 펼치셨으며 오늘날
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승리의
5월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만리마사
데를 대고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
하고있다고 강하게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
신념과 강철의 의지에 대하여 열렬
히 호하는 통성고기공공장 직맹
이동체결장사 리영실의 웅변은 참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진행

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는 웅변 《위대한 수령님의 단
과 배》에서 대국주의자들과 종파
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르고
전체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어 이 땅에
미약의 천리마사대를 펼쳐주시고 인
민대중중심의 우리 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수령님의 분면의 업적과
절세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하였다.

신의주방직공장 직맹감독소 조규
직맹위원장 리영옥, 항구구역 영웅한
투조규감독과 직맹초급단위위원장
박춘애는 웅변 《70일전투의 날과
밤》, 《자강력》에서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태어나고 만
능의 무기로 용이한 지역지장의 정신력
으로 당 제7기대회로 향한 철야전
의 용과기를 넘어가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재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화대광산 소년장 박남철
은 웅변 《태양조선의
선언》에서 이렇게 강조하
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구상과
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막근
해적제국들의 극악한 도발책동에
대항하여 우리의 진해 로동계급은
수령님들께 충성하여 투쟁해나갈다.

모두가 우리의 눈부신 태양을 가
리워보려고 미처나갈고있는 적들을
찌중차도 없이 짓밟아버릴 적들의
기세로 힘찬 투쟁을 벌려 70일전투
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 영광
의 5월을 맺었이 맞이하자.

웅변대의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
의 태양으로 찬성하는데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도하며
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과학기술
총련맹장립 70
년 기념보고회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인 위충진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님께서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새 조국
건설과 순연한 조국해방전쟁, 전
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주체의 새시
대가 펼쳐지고 백두산대국으로

조선과학기술총련맹장립 70년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과학기술
총련맹장립 70
년 기념보고회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인 위충진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님께서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새 조국
건설과 순연한 조국해방전쟁, 전
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주체의 새시
대가 펼쳐지고 백두산대국으로

조선과학기술총련맹장립 70년
기념보고회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인 위충진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님께서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새 조국
건설과 순연한 조국해방전쟁, 전
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주체의 새시
대가 펼쳐지고 백두산대국으로

조선과학기술총련맹장립 70년
기념보고회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인 위충진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님께서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새 조국
건설과 순연한 조국해방전쟁, 전
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주체의 새시
대가 펼쳐지고 백두산대국으로

조선과학기술총련맹장립 70년
기념보고회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
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
원장,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꽃바
구니 진정

민수대인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이
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
브라힘 만두가 꽃바구니를 보
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개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시리라》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구성원들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구성원들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전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애국적이며 혁명적
인 민경대일가분들의 혁명적
주체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를 세겨오며 시작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대표는 위대한 김일성주체
님에 대한 존제와 진보적인류
의 그리움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를 찾
은 그들이 오는 격정을 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주체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모든
것을 바치시었다.

고급동서의 그 어는 역사에도
우리의 주체님적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구성원들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전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애국적이며 혁명적
인 민경대일가분들의 혁명적
주체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를 세겨오며 시작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대표는 위대한 김일성주체
님에 대한 존제와 진보적인류
의 그리움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를 찾
은 그들이 오는 격정을 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주체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모든
것을 바치시었다.

고급동서의 그 어는 역사에도
우리의 주체님적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장립 70년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과학기술
총련맹장립 70
년 기념보고회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인 위충진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님께서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새 조국
건설과 순연한 조국해방전쟁, 전
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주체의 새시
대가 펼쳐지고 백두산대국으로

조선과학기술총련맹장립 70년
기념보고회
1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인 위충진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님께서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새 조국
건설과 순연한 조국해방전쟁, 전
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주체의 새시
대가 펼쳐지고 백두산대국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학기술총련맹을 창립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
으며 총련맹이 기술혁명수행에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결심할 것을 손잡아 이끌어주시
었다.

과학기술발전이 인제 나
같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
중심, 총대중심과 함께 과학
기술중심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조선과학기술총련맹에 수백차
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번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분면의 업적을 팔았이 믿어
나가는 당중앙은 조선과학기술
총련맹이 과학기술사화대제로
사의 역할을 하여 나라의 과학
기술발전에서 한층더 높은 단계
에 이르게 하도록 하여주시고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킴
을 위한 사상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은
창립 후 지난 70년 동안
백두산절세인민들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부분별발전, 학회들과 수많은
신하조직들을 창립하고있는 위
대한 사회단체로 강화발전하여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투쟁
에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
행하였다.

전국과학기술총력대회와 과학
기술발표회, 과학기술전시회
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활동
을 활발히 벌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널리 교환하고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였으며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심시기를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최근년간 혁명중앙위원회에
새기술보급소를 내고 수많은
과학강연자료와 새기술공보 등
을 편찬발행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킴
을 위한 사상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학기술총련맹을 창립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
으며 총련맹이 기술혁명수행에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결심할 것을 손잡아 이끌어주시
었다.

과학기술발전이 인제 나
같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
중심, 총대중심과 함께 과학
기술중심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조선과학기술총련맹에 수백차
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번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분면의 업적을 팔았이 믿어
나가는 당중앙은 조선과학기술
총련맹이 과학기술사화대제로
사의 역할을 하여 나라의 과학
기술발전에서 한층더 높은 단계
에 이르게 하도록 하여주시고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킴
을 위한 사상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은
창립 후 지난 70년 동안
백두산절세인민들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부분별발전, 학회들과 수많은
신하조직들을 창립하고있는 위
대한 사회단체로 강화발전하여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투쟁
에서 맡겨진

열화같은 위인흠모의 노래, 친선의 정 넘쳐 더더욱 뜻깊은 태양절

제 30차 4월의 봄 친선에 예술축전장에서

근로하는 인민의 당, 젊음이 약동하는 나라

월남국가예술단의 일군들과 예술인들

인류공공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 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수도의 여러 구장에서 편일관중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공연을 진행해나가고있는 수십개 단체의 예술인들속에는 월남국가예술단의 예술인들도 있다.

수십개의 민족들로 이루어진 월남인민들의 생활과 역사를 통해 월남인민들의 애국적 정서를 높여주는 무용작품들도 이채로웠지만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퍼져있는 불우의 고전적명작 《홍성의 노래》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월남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여러 노래들을 한두개의 줄만 있는 특색있는 현악기들로 재치있게 형성한 독주곡들도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월남의 독창가수들이 풍부한 사상감정과 높은 예술적기교로 노래를 형성한 우리 나라 노래 《내애하리》,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높이 흥高采를 부르라》는 위대한 수필이십니다.

《에스빠냐 플라멩코》음악단은 명칭 그대로 플라멩코무용으로 특색있는 예술단체이다.

이 나라에는 지방적색채가 두드러진 민속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플라멩코무용은 에스빠냐를 대표할수 있는 민속무용이라고 한다.

플라멩코음악단이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이

데 한껏 힘차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칠막과 전쟁, 지해와 예술을 반대하는 세기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들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월남국가예술단의 공연이 첫날부터 관중의 심금을 그토록 울리며 성공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

하나하나의 공연종목들이 끝나기 바쁘게 온 구경이 떠나가도록 울려 퍼지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아오는 월남국가예술단원들은 자기의 직종원심정을 우리에게 열렬히 토로한 월남음악무용구장 지해인 땅이 이프요도 있었다.

그의 남다른 흥분은 단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공연이 예전의 성과물 거둔것때문에 생긴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제 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시작에 착수한것은 지금으로부터 두달전이었다. 어릴 때부터 귀에 익도록 들어온것으로 하여 연세들어 가보고있었던 조선, 로동을 사랑하고 근면하며

다른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지니고있는 인민들이 사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으로 하여 그의 기쁨은 이를테면 없었다.

그런데 배우들을 선정하고 종목을 고르느라 어쩔이 없던 그는 우리 나라에 다녀왔던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맥을 놓을뻔 하였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조선의 예술인들은 참으로 높은 예술적기량을 가지고있다. 조선의 예술은 그 도태가 그른나라에 비해 조선사람들은 늘 훌륭한 예술공헌을 하고있다. 때문에 몇몇의 노력하지 않고서는 공연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것이라고 말하였기때문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축전에 참가하게 될 배우들의 기량향상에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물론 그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성이기도 하였다.

그러하여 그를 비롯한 구경의 일군들과 배우들에게 있어서 숙제준비기간의 그 두달은 보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춤동작과 화목적인 출구도 등으로 형성된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위인흠모의 송가들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들로 환호하는 경의의 무대를 펼쳐놓으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친선과 연대성,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종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송고한 의미와 커다란 활력과, 건진력며 놀라움을 감출수 없었다.

단장인 카라카마르 카르멜로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에 와서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과 개막공연을 통해서 이번 조선에 온 걸심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

재중 조선인 예술단에서

《평양소식》 등 월세위인들을 칭찬한 노래, 조국인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들로 한국만큼 깊은 사랑과 연구속에 선정하였다는 사실은 예술단배우들의 애국심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공연은 끝났어도 관중있는 성악가수인 최경호동무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노래 《조국과 나》, 《살하는 소년》을 자기의 진정이 담기고 심정을 반영한 노래라고 하면서 지난해부터 성의있는 준비를 해온 그의 노력이 그대로 솟아나왔다.

그가 부른 노래는 관중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다.

그리고 무용 《귀리밭 배수안》에 출연한 배우들은 한층 더욱 대를 이어 경애하는 인민들을 위한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우아하고 세련된 기량과 연기형상으로 보여

주었다.

조국의 강대함과 조선인민들의 긍지를 한껏 느끼며 그들은 이번 축전에서 월세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애호와 흠모의 감정을 안고 이역명에서 애국의 대, 친선의 대를 역세게 이어가려는 자기의 모습을 독특한 화복에 담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김연주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번 공연을 당 제 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날로 번영하는 태양조국의 밝은 승리에 자자들의 마음도 따라우아고있는 재중동포들의 심정의 토로가 아니겠는가.

하기에 이들의 공연이 조국인민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것이요.

글 및 사진 강효심

태양절의 주인공이 되리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적인 간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첫날공연이 끝난 후 봉회배수안구의 무대막 뒤에서는 재중조선인 예술단 배우들의 감명깊은 화복이 펼쳐졌다.

공연성과를 축하하는 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찬사를 들으며 배우들은 공연의 토의를 위해 노력하는 수도에 대한 추억에 힘입어 서로 이야기하기를 주고받았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20여명의 예술단원들전체를 한바탕 연습을 하여 피로가 겹쳤지만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공연을 보장하였다는 김연주단장의 격정에 젖은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가 공연종목을 《우리의 흥겨운 동지》, 《신년과 의지의 한가》,



첫 인상, 강렬한 지향

에스빠냐 플라멩코 음악단의 예술인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높이 흥高采를 부르라》는 위대한 수필이십니다.

《에스빠냐 플라멩코》음악단은 명칭 그대로 플라멩코무용으로 특색있는 예술단체이다.

이 나라에는 지방적색채가 두드러진 민속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플라멩코무용은 에스빠냐를 대표할수 있는 민속무용이라고 한다.

플라멩코음악단이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이

데 한껏 힘차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필가인 김일성의 위인 이십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변경된 일정에 비껴 마음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평양에로의 길은 끝없이 이어진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평양에로의 길은 끝없이 이어진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가배수로밀폐공사 완공, 물잡이 시작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번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화 조국의 모습을 보이며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며 외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시다.》

은 나라에 총정의 70일전투의 막한 승리가 약동하는 속에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건설장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1일 발전소건설구역에서는 가배수로의 수문을 닫는 작업과 밀폐공사가 단 3시간만에 성파적으로 끝났다.

런이 기본연계의 물잡이가 시작되어 며칠안으로 발전소비들의 총시운전을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서두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공호수가 생겨나게 되었다.

2호발전소의 가배수로로 밀폐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또다시 거창한 3호발전소건설에서 가배수로로 밀폐되고 물잡이가 시작되었다.

밀폐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은 불도카나나방 세차기 끌어내었다. 방수선전차에 의한 선동과 기동에 운전동태활동으로 현장분위기까지 한층 고조된 속에 밀폐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에 참가한 청년동맹조직회원들과 전투원들이 펼치는 불속에 시금치처럼 뛰어들어 혼날라와 전후배에 대한 인민들의 기상을 떨치었다.

직경이 수m나 되는 가배수로 입구와 출구밀폐작업이 성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3호발전소 건설공사에는 며칠안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인공호수가 지대를 드러내게 되었다.

당시 인젠은 장충의 단력과 배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전투원들이었다.

《우리의 기쁨은 동지》, 《내성 2중창》, 《인생의 세계》 등에서 출연자들은 인민의 꿈과 이상을 밝히는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인민들에게 대한 다짐있는 흥도심과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오늘 흥도심에서 승리하는 신념과 충성의 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

중정의 70일전투의 현안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에 혁명적열정과 방언을 더해오는 왕재산예술단의 지향동행공연이 12일부터 해주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도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개시음악 《귀리밭 배수안》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노래와 무용, 기악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내성 2중창 《우리의 기쁨은 동지》, 내성 2중창 《인생의 세계》 등에서 출연자들은 인민의 꿈과 이상을 밝히는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인민들에게 대한 다짐있는 흥도심과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오늘 흥도심에서 승리하는 신념과 충성의 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

태양절경축 학생소년공연, 학생소년회관 예술소조원들의 민요경연입선자

합 발표회 진행

시장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 내내주시며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절필의 노래 하였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지켜주시러 불현중의 강경도강행군님의 헌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되새겨주는 더욱

왕재산예술단 해주에서 공연 진행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합 발표회 진행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태양절경축 학생소년공연, 학생소년회관 예술소조원들의 민요경연입선자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예술인들》

다름아닌 세기적이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 그리고 애국의 정이 이 공연을 하듯 앞날 저, 평양교예구장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있는 교예배우들이었다. 로씨야국가교회사교예단 원정원들이었다.



